

故 박용철·故 김남주·조정래·이청준 등 유명 문인 배출 광주·전남

‘문학 향기’ 피울 문학관이 없다

올해는 한국 현대사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 최근 각 지자체들은 한국 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지역작가들의 문학관을 건립하는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경남 남해시는 유배문학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유배문학관을, 충남 당진군은 소설가 심훈(1901~1936)의 상록수 문학관을 각각 내년까지 건립하기로 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은 고 김남주, 조정래, 이청준, 황석영, 김지하 등 걸출한 문인들을 배출한 ‘문학(文鄉)’임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문학관이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박화성, 조태일 등 기존의 몇몇 문학관들은 당국의 무관심과 예산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반해 다른 지역의 문학관들은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등 관광객자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강원도 원주의 ‘토지문학관’이다.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를 기념해 건립된 ‘토지문학관’은 지역주민이나 작가 지방생들을 대상으로 토지문학교실을 열고 있다. 방학 중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학캠프도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기성 작가들에게는 세미나 개최와 집필실 제공 등 창작의 산실로 활용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도 몇 해전부터 일부 지역 출신 문학인들을 기리기 위한 시비, 문학관, 문학공원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매입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다 기존의 문학관들은 인력·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체계적인 관리가 안돼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가을의 기도’로 유명한 시인 김현승(1913~1975)의 시비가 지난해 1월 생가(광주시 남구 양림동) 인근에 위치한 호남신학대학에 건립됐



지난달 목포문학관 주최로 열린 서각전에서 관람객들이 목포 출신 문인들의 작품과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목포문학관 제공>

문학인 중심 건립 움직임에도 지자체선 무관심

집필실 등 창작 산실 활용 관광자원 개발해야

다. 일부 문학인들을 중심으로 그의 시 세계를 조명하는 문학관을 건립하자는 움직임이 제기됐지만 당국의 무관심으로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올해로 사망 70주기를 맞는 ‘떠나가는 배’의 시인 용아 박용철(1904~1938)의 경우 그의 문학적 체취를 느낄 수 있는 문학관이 없다. 지난 2004년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에 위치한 시인의 생가와 그 주변에 문학관을 조성, 일대를 주요 문화관광지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예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지매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말 완공예정이었던 소설가 조정

래의 ‘소설 태백산맥 문학관’은 공사가 늦어져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순천 출신 동화작가 정채봉(1946~2001)과 소설가 김승옥을 기념하기 위한 ‘순천 복합문학관’도 지난 2004년 애초 해룡면 상내리에서 순천만 인근으로 부지를 옮긴후 진척이 없어 열세 남비라는 지적까지 받았다.

한국문인협회 정대연 부이사장은 “네덜란드 출신의 동화작가 안데르센 문학관은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전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든다”며 “문인들을 기념할 수 있는 문학관을 건립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서 2인 문화교류 한마당 잔치

5일 동구 인도박물관서 개막

아시아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아시아 문화 교류와 체험 한마당이 4월 한달간 광주·전남 일원에서 열린다.

광주아시아문화교류재단(이하 교류재단·이사장 김재우) 등은 오는 5일 열리는 아시아문화나눔잔치와 2008 아시아문화예술인 교류 사업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5일 오후 5시 광주시 동구 운림동 인도박물관에서 열리는 아시아문화나눔 잔치에서는 인

도의 세계적인 음악 그룹 ‘호리볼’과 인도의 피리 연주자 노보 쿠마르, 일본의 호리 다시, 한국인으로 처음 인도 바울(방랑하는 유랑 시인)에 입문한 나무, 광주의 타악 그룹 얼수 등이 흥겨운 공연을 펼친다.

또 사찰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준비돼 있으며 이주여성장학금 마련을 위한 행사에서는 가수 은희가 제작한 제주 갈매경매 한국인도 적절 자수 특별전 등을 만날 수 있다.

아시아문화예술인 교류 사업은 템플 스테이(해남 미황사, 보성 대원사), 한국문화교실

(광주 학교, 도립 담양대학 도예체험실, 놀이패 얼수 작업실), 박물관 투어(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등으로 진행된다.

25~26일 인도박물관에서 열리는 아시아문화주간 행사에서는 다문화 세미나가 열리며 인도·네팔·몽골 음식과 문화 풍속 체험, 네팔과 필리핀 그림 전시가 열린다.

또 10일과 22일 오후 6시에는 옛 전남도청 자리에 위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에서 네팔과 인도 문화 교류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문의 062-224-0045.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 예술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교류사업이 4월 한달간 광주·전남 지역에서 열린다. 지난해 인도 바울과 얼수의 공연 모습.

산·강·바다... 자연이 화가를 보다

중견화가 '청동회' 회원전 이달 4~20일 금남로 분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이 지역 미술단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4~20일까지 중견 서양화가들의 모임인 ‘청동회’(회장 이충연) 회원전을 개최한다.

“자연이 화가를 바라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김덕선, 김미영, 노의웅, 박현희, 설경민, 안태영, 양원

철, 이치선, 이현정, 정광웅, 조남현, 주성범, 최인정, 한철환씨 등 22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이들 작가들은 산과 강, 바다 등지의 현장 스케치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소품 2천여 점을 선보인다. 대작에서 느낄 수 있는 웅장한 이미지를 선사하기 위해 소품을 빈 공간 없이 빼곡히 전시장에 내걸었다.

청동회는 지난 1980년 청년 작가 동지회(청동회)로 창립돼 26차례 정기



이충연 작 ‘자연이 화가를 바라보다’

전과 9차례의 특별전을 여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문의 062-222-357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BPW 광주·무등클럽 ‘여성 문화 CEO만들기’ 강좌 개설

전문직여성한국연맹(BPW) 광주·무등클럽은 4월19~6월까지 3개월 과정의 ‘차세대 여성 문화 CEO 만들기’를 개설, 수강생을 모집한다.

광주에 거주하는 여대생이나 미취

업 여성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이번 강좌는 ‘이 시대의 비즈니스 성공코드, 문화’(19일) ‘방송과 신문 세상을 보는 창’(26일) ‘공연·미술전시 기획’(5월3일) ‘파주 헤이리 문화마을 탐방’

(6월 이후) 등으로 꾸려졌다.

참가회비는 오는 10일까지 이메일(khksps80@hanmail.net)로 자기 소개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 문의 062-222-1472.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산따라 물따라 전국 명소 풍수 기행

백남종씨 현대사상 접목 책 펴내

“풍수지리학은 인간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조상의 지혜인 풍수지리 이론과 전통 문화를 현대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책이 나왔다.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정통풍수지리학을 강의하고 있는 백남종씨가 ‘산따라 물따라 자연의 신비와 함께하는 풍수기행’(소스

리)을 펴냈다. 책은 명당으로 불리는 장소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냈다.

저자는 이를 위해 10년 남도록 호남지역을 비롯해 경기도, 충청도, 경북까지 전국 각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책은 풍수지리학 개론, 풍수기행, 풍수사에 등장하는 인물을 정리한 부록 등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음양오행론, 보국명당론, 기혈론 등 풍수지리학에 기본 이론을 상세히 소개



했다. 2부는 청와대 집터, 담양 변양정, 영암 월출산, 고산 윤선도의 고택인 녹우당, 안동 하회마을 등 전국 명소의 풍수지리를 전통·현대사상에 접목해 설명했다.

저자는 “풍수지리가 오랜 세월동안 우리와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친자연적이면서 과학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 책이 일반인들에게 올바른 풍수의 원리를 알리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Happy Time 영화안내 banner with movie posters and logos.

메가박스 MegaBox cinema listing with showtimes and prices.

엔터 시네마 Enter Cinema cinema listing with showtimes and prices.

콜롬버스 시네마 Columbus Cinema cinema listing with showtimes and prices.

씨너스 전대 Cineas Cinema cinema listing with showtimes and prices.

하미 시네마 Hami Cinema cinema listing with showtimes and prices.

무등극장 Mudeung극장 cinema listing with showtimes and prices.

제일시네마 Jeil Cinema cinema listing with showtimes and prices.

